

HD현대, 타밀나두 조선소 검토… ‘울산 닮은꼴’ 사업성 부각

현지 정부와 배타적 협약 체결
울산 기후 유사 투투쿠디 최적지
항만투자 확대 조선 인프라 개선
BEML과 항만 크레인 공동 개발
현지 조선소에 집 크레인 등 공급

HD현대가 인도 현지에 신규 조선소 설립을 검토한다.

HD현대는 지난 7일 인도 남부 타밀 나두주 마두라이에서 스탈린 주 총리와 라자 주 산업부 장관,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인도 정부는 세계 5위 조선·해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기존 조선소 증설과 함께 신규 조선소 건립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도 정부는 타밀나두,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등 5개 주를 신규 조선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해 최적의 부지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 주(州) 정부 투자청과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줄 왼쪽부터 다레즈 아하메드(Darez Ahamed) 주 투자청장, 라자(T.R.B Rajaa) 주 산업부 장관, 스탈린(M.K Stalin) 주 총리,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 /HD현대

를 물색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소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타밀나두 주 정부는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인프라 확충, 우수 인력 확보 등을 내세우며 HD현대를 신규 조선소 건립 사업 파트너로 최종 낙점했다.

신규 조선소 건립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타밀나두 주 투투쿠디 지역

은 기온과 강수량 등이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과 유사해 최적의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데다 인근 항만 시설에도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HD현대는 이달 초 인도 남부 도시 벵

갈루루에서 인도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인 BEML과 ‘크레인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BEML은 국방·항공우주 장비, 광산 및 건설 중장비, 철도·지하철 차량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벵갈루루와 콜라르 등 인도 남부 지역에 다수의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는 BEML과 설계·생산·품질 검증 등 크레인 제작 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인도 내 항만 크레인 제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인도 현지 조선소에 골리크 크레인인고 집 크레인까지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삼호는 지난 2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인 코친조선소에 600톤급 골리크 크레인을 성공적으로 납품한 바 있다. 또한 8월에는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HD현대에코비나를 인수하는 등 HD현대는 크레인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인도는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강해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인도와 의 조선·해양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edhale@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차량 전장 SW 연구분소 신설… 글로벌 R&D 확장

벵갈루루에 두 번째 SW 거점 구축
전장·ADAS 대응 차량용 SW 강화
지역 특성 반영한 R&D 이원화 추진

현대모비스가 인도에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분소를 신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이원화 정책을 추진한다.

현대모비스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남부 벵갈루루에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분소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초 구축한 기존 하이데라바드 통합 연구센터에 이은 두번째 연구 거점이다. 최근 인도 자동차 시장이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이동하면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탑재 증가 추세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벵갈루루는 카



르나타카 주(州)의 대표 행정도시이자 글로벌 IT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조성된 곳이다. 현

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 전 지역에 추가 거점을 검토해오다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이 우수한 벵갈루루를 최종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문 연구거점을 신설한 것은 우수 인재 확보 목적도 있다. 인도는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인재 배출도 해당 지역의 산업에 크게 좌우된다.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사들도 인도 주요 도시마다 분소를 운영하는 추세다.

현대모비스는 벵갈루루에 인도 현지 고객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분소를 운영해 현지 고객사들의 요청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 글로벌 수주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벵갈루루 분소를 인포테인먼트용 소프트웨어 전문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분소 신설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현지 연구개발 전략도 유연한 태세를 갖추게 됐다.

기존 하이데라바드 통합거점은 현지 연구개발 헤드쿼터로서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전략 수립과 글로벌 연구소와의 협업,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맡는다. 벵갈루루 분소는 소프트웨어 기능 구현의 기반이 되는 프레임워크 등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영역을 담당한다. 두 거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지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플랫폼 개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인도 전역에 공장과 연구소 등 주요 거점을 운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첸나이와 아난타푸르의 두 생산거점에서 모듈과 핵심 부품을 생산중이며, 구루그람의 부품거점에서는 안정적인 A/S 부품 공급을 책임진다. 이번에 신설한 벵갈루루 분소와 함께 하이데라바드 통합연구거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델리와 첸나이에는 각각 구매센터와 품질센터를 운영중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인도 현지 글로벌 고객사로부터의 수주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수주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오는 2028년까지 인도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수주 금액을 올해 대비 6배 가량 상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고성능·전장 카메라 수요 확대… LG이노텍·삼성전기, 설비·공장 투자 재개

아이폰·전기차 수요에 투자 확대
LG이노텍, 광학 기술 강화 추진
삼성전기, 멕시코 공장 재가동

중국 업체들의 공세로 부진을 겪던 국내 카메라모듈 업계가 다시 투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아이폰 17 수요 폭발과 전장용 카메라모듈 채택 확대가 맞물리며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사업 전망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생산능력 확충과 기술 고도화에 투자를 잇달아 늘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의 카메라모듈 사업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사업부의 올 3분기 누계 매출은 11조6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LG이노텍의 광학솔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루션 누계 투자 금액은 3016억원으로 사업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월에는 광학솔루션 사업부 시설투자에 3411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광학솔루션 사업 신모델 대응 및 경쟁력

향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LG이노텍의 이번 시설투자가 애플이 내년 출시할 아이폰18에 가변조리개 기능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LG이노텍이 중국 경쟁사들과의 기

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광학 기술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균판매단가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LG이노텍은 고배율 줌, 대형 이미지센서, 광학 손떨림 방지(OIS) 등 차세대 광학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기는 올해 3분기 누적 광학솔루션 사업부 매출이 2조8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9361억원)대비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카메라모듈의 평균판매가 격이 전년 대비 1.3% 상승해 제품 가격 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을 띠고 있다. 또한 전기차 및 완성차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내 카메라 모듈 공장 건설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투자 규모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전장 중심의 카메라모듈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기가 초기에 공장 가동 시점을 투자 착수 후 1~2년으로 설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추진에 따른 생산 개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2027년 쯤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삼성전기는 지난 2023년 11월 멕시코 케레타로에 법인을 세우며 현지 공장 설립을 준비했다. 테슬라·포드·GM 등 북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돼 올해 초 해당 투자를 일시 보류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